



# 성찬을 들 때마다

부산 스테이크 부장  
민혜기

성찬을 들 때마다, 침례받은 직후 선교사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형제님은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 성찬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찬을 취하면 죄를 삼키는 것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두려운 마음으로 성찬식을 맞이하곤 했습니다만, 그후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을 깨달은 후 성찬을 드는 시간은 저의 신앙 생활에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의 유래와 성찬의 의미와 성약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찬이 최초로 시작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앞으로 있게 될 그의 희생을 가르치시며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 26:26)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 그 후에 잔을 들고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이때에 성찬 의식이 제정되었으며 제자들은 자주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을 기념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또 니파이인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성찬을 제정해 주

시면서 “너희는 언제나 이를 행하며…… 이는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니삼 18:11)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일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조직될 때에도 주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교성 20:75-79 참조).

성찬을 드는 것은 교회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의 하나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 구세주의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먹는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모형으로서 지켜졌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 의미를 잃게 되어, 주님께서 이 의식을 변경하시고 그 대신으로 성찬 의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찬 의식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와 같은 성찬의 의미와 성찬 집행 방법의 오류는 신권의 권능이 지상에서 사라지자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거룩한 의식이 만찬으로 변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식사로 변하기도 했고, 또 이 의식에 많은 신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여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의식을 지켜 볼 수도 없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화체설까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체설은 성찬의 상징물이 의식을 통하여 곧 원래의 떡과 포도주의 성질을 잃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실제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설입니다. 또 후에는 성찬의 두

상징물 중에서 하나만 취하는 관습이 생겨 성찬 중에 떠난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를 기억하고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며, 성령이 끊임없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찬을 축복할 때 성찬 기도를 주의깊게 듣고, 상징물을 들 때마다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구원의 교리 2: 306).

첫째,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면서 먹는다.

둘째,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 곧 곧 아담의 범법을 속죄해 주고,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피를 기억하여 마신다.

셋째,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그를 기억하겠다고 성약한다. 이 성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할 행동은 아무 것도 안하겠다고 약속한다.

넷째, 우리는 그가 주신 계명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성약한다.

이상의 4가지를 성찬을 들 때마다 늘 명심하면 우리는 성신의 인도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신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요 6: 48-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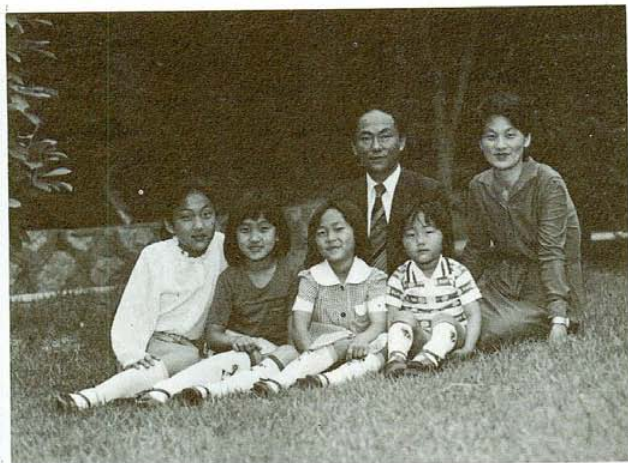
또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합당한 태도로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을 합당치 않게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성찬의 신성을 해치는 자에게는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형벌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파이인에게 “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십이라”(니삼 18:29)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을 때 성찬을 들어서는 안되며 성찬을 들기 위해서는 마음과 손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고 성찬이 요구하는 성약을 맺지 않는 자와 성찬식에 참석하더라도 고의로 성찬을 거부하는 자는 무거운 정죄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없는 것은 고의로 영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식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타내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며, 신성한 원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성찬을 들으로써 가장 훌륭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들 때마다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성약을 다시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주님의 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값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신임 서울 서 선교부장 김 차 봉



전열 첫번째 : 김 선영(12세), 두번째 : 김 진영(10세)  
세번째 : 김 미영(7세), 네번째 : 김 종선(5세)  
2열 좌 : 김 차봉 선교부장, 2열 우 : 김 휘나 자매

김 차 봉 형제는 1980년 7월 1일자로 서울 서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서울 서 선교부장으로 일해 온 클레멘트 선교부장은 서울 선교부로 전근되었다. 신임 김 차 봉 선교부장은 부인 김 휘나 자매 사이에 1남 3녀를 둔 성실한 가정이다. 김 차봉 형제의 교회 약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68년 4월부터 1970년 2월까지 서부지부(현재 제 2와드) 지부장으로 봉사하였다. 그후 1973년 서울 스테이크가 탄생되기까지 동부 지부(현재 제 1와드) 지부장으로 수고하였다. 같은 해 3월 18일 서울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제 1와드 감독으로 부름을 받고 1976년 9월까지 봉사하였다. 감독의 직책에서 해임되면서 1977년 5월까지 서울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충실히 일하였다. 1977년 5월 이후 서울 서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 1보좌로 봉사하였다.

이상은 교회의 약력이고 김 형제는 부름을 받기까지 서울 서 신학 연구원장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데 모든 열의를 다 하였다. 부인 김 휘나 자매는 1968년 회원이 된 이래 교회에서 수많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김 형제를 내조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김 자매는 부름을 받기까지 화곡 와드주일학교 복음 교리반(28반) 교사로 수고하였다. 김 차봉 형제는 신학 연구원 교수로도 많은 시간을 봉사하였는데 김 형제의 강의는 이해하기 쉽고, 흥미있고, 조리있는 강의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 서 선교부는 동대전 지부, 독산 지부, 방배 지부, 시흥 지부를 조직했으며, 서울 서 스테이크의 와드, 지부와 서울 북 스테이크의 와드, 지부를 돕고있다. 현재 서울 서 선교부는 동교동 로타리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 번호는 33-6102이다. 주소는 서대문 우체국 사서함 71호이다. \*

## 고 박 필근 자매

(고 김호직 장로의 부인)

부

### 영결식

지난 6월 5일 서울 북스테이크 제6와 드에서 한 인상 지역 대표의 감리로 고 김호직 장로의 부인 박 필근 자매의 영결식을 가졌다. 사회는 정 민호 감독이 맡았고, 오 광근 형제의 약력 보고와 북스테이크 합창단의 은은한 찬송이 울린 후에, 한 인상 장로의 조사가 있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례 절차대로 경건하게 모임이 끝났다. 장치는 고 김호직 장로의 묘소인 망우리 개인 묘소이다. 이날 유족과 친지 및 많은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이 참석하여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여기서 김 호직 장로를 잘 모르는 성도와 구도자를 위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고 김 호직 장로



홍익 대학강 재임시의 김 장로 부부

### 고 김 호직 장로의 약력

1905년 평북 출생으로 일본 동북 대학 이학부를 졸업하고 정부 수립후 제1차 도미 유학생으로 코넬 대학원에서 "공의 생장 촉진소"에 관한 논문으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4년 10월 수산 대학장에 취임하여 100여 명에 불과하던 대학을 800명이 넘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놓았으며 1958년 축산 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 기관에서 수많은 직책을 역임하였고 많은 공직을 통하여 나라에 이바지하였다.

1959년 8월 29일 문교부 차관 봉직 당시, 각급 학교 잠부금 증수 허가 여부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회의장에서 뇌일혈로 쓰러져서 3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한 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하고 8월 31일 새벽 고요히 눈을 감았다.

김 호직 장로의 종교 생활을 보면 1939

년부터 1951년까지 장로 교회에서 장로로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1949년 두 가지 목적으로 도미하였다. 첫째는 영양학을 더욱 연구하고, 둘째는 참된 종교를 찾기 위해서였다.

코넬 대학원에서 물문의 생활 태도와 신앙에 감화되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받은 사스케하나 강에서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다. 1953년 5월 27일 부산에서 스펜서 멧슨 군목에게서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받고 1955년 8월 2일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로부터 한국 지방부장으로 성별되었다.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이 땅에 그 기초를 세웠다.

(이상 성도의 벗 창간호에서 발췌)